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충현

발행인 : 이종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고난주간 특별행사 가질 예정

특별새벽기도회, 금식일선포
금요기도회, 음악예배개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새벽기도회를 비롯한 특별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하심을 고대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인데 설교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금요일 13일을 전교인 금식일로 정한다.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를 가지며, 금식미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헌금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식미 헌금은 부활주일에 교회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13일 저녁 8시부터는 고난주간 전교인금요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기도회 때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며 교역자와 장로 가족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특집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⑬

한 땀은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방 안에서 목을 매고 죽었다는 어느 분의 서글픈 기사를 읽고 나는 한 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전세금이 올라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 집 한 칸이 없어 유서를 남기고 눈을 감았다는 글을 읽으면 서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조차도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는다면 할 말이 많겠으나 이것은 분명히 사회 전체의 책임이요, 국가의 책임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교회의 책임이었습니다. 물론 어렵다고 죽은 본인의 책임을 면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용기가 있었다면 그 용기로 살아야 했고, 사는 것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길이었음을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자살이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나 분명 자살은 타인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살인행위를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값 폭등을 비롯해서 심각한 물가와 경제적으로 불안한 현실도 문제이지만 고도 성장만을 외치다가 잃어버린 윤리성과 도덕성을 어디서 찾아와야 될지가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님들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4월 8일
이종윤 목사

대학부 주관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전개

보릿고개라고 하던 춘궁기가 이 땅에서 사라진 지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 몇 년 동안의 쌀 풍년으로 해마다 쌀이 남아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쌀떡거리나 쌀소주의 생산을 권장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협의회, 한국일보를 비롯한 기독교언론매체와 기독교 단체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배신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성하며 지난 3월 1일부터 “쌀 풍년을 사랑 풍년으로”라는 표어 아래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이 운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본당 입구에 ‘사랑의 쌀 나누기 성금함’을 마련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결실 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과 북한 동포 및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난민을 구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도를 실천하고, 피폐된 농촌 경제에 도움을 주며, 과소비 풍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에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와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임목사 동정

충현 실업인선교회 창립 총회 설교
경로대학 개강예배 설교

이종윤 위임목사는 오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갈릴레 홀에서 열리는 경로대학 개강예배에서 설교를 할 예정이다.

또한 저녁 7시에는, 사역을 통해 복음 전도의 새 생명을 감당하자는 뜻을 모아 우리 교회 실업인들이 참여하는 충현 실업인선교회 창립총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충현 새가족환영회



충현 새가족 환영회가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30분 갈릴레 홀에서 열렸다.

새가족들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환영회는 지난 2,3월에 등록한 약 150여 명의 충현의 새식구들이 모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종윤 위임목사가 환영의 말씀을 하고, 충현교회의 역사와 교회 조직, 교약서, 장로들의 소개와 고구별로 좌석을 마련해 교구 담당 교역자와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소개를 하는 등 친교의 재조를 가졌다.

제10회 미국장로교회 한인 교역자 수양회 개최 예정

우리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PCA)에 소속된 한인 목사와 장로자 50여 명을 초청하여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교회 갱신과 성장”을 주제로 제10회 PCA 한인 교역자 수양회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 이종윤 위임목사가 “지도자론”에 대하여, 손봉호 교수가 “목회자 갱신과 교회 성장”에 대하여, 정규남 목사가 “예배 갱신과 설교”에 대하여, 린턴 목사가 “교회 갱신과 E-2 전도 전략”에 대하여, 신성중 목사가 “강해 설교와 교회 갱신”에 대하여, 김명학 목사가 “현대 문화에 도전받는 교회”에 대하여, 박정용 목사가 “성경공부와 영성 훈련”에 대하여 각각 강의를 한다. 그리고 임택진 목사와 김성만 목사의 사회로 “교회성장의 주요 원인과 저해 요인”에 관한 워크샵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수양회의 대의장은 이종윤 위임목사와 김택용 목사이며, 준비위원장은 이원상 목사이다.

“연령별 학생 이해”를 위한 기독교 교육세미나 개최 예정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는 교회교육 연구 위원회와 함께 대일(4월 9일) 오후 7시 갈릴레 홀에서 효과적인 교회학교 교육과 관련한 자녀 양육을 위하여 “연령별 학생 이해”라는 주제로 아래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초청하여 단기 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영아·유치부, 초등 1~3부, 초등 4~6부, 중·고등부, 대학·청년·장년·소방·새가족·새가족·특수부 세 등 연령별로 분과를 나누어 주선에 박사, 이영덕 박사, 오원탁 박사, 정규남 박사, 정소영 박사가 강의를 하며 개회예배에서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설교를 하게 된다.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성경 강해

이 종 운 목사

자유인과 죄의 종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 8:31-48)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또 한 부류는 진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1. 자유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요 8:31-36). 요한복음 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각 절에 나와 있는데 31절의 믿음은 아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30절의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유인의 삶

첫째, 자유인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요 8:31)

‘거한다’는 말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뜻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자유인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요 8:32)

자유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었을 때에 한국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사마니즘이 대단히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에 절했습니다. 산이 도와주는 줄 알고 물이 지켜주는 줄 알고 보이는 어떤 것이 지켜주는 줄 알고 그런 것에 절을 하며 신격화했습니다. 그런 생활 풍조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교회에 달아 놓은 십자가 앞에 가서도 불공을 드리는 식으로 자꾸 절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걱정이 되어서 십자가를 다 떼었습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강대상에 십자가 없는 교회는 한국교회 뿐입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에 실시하는 학습과정도 한국 교회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경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식을 베풀다보면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참여하므로 그

의미를 일깨워 주고 6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게 한 후에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제도를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성경의 진리처럼 주장할 것은 못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달아 그것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셋째, 사람들은 진리에 의해 자유인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자유란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 자유나, 혹은 언론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자유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의 자유는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린아이들조차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를 믿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게 될 때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비겁해 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아들이 자유를 주면 아버지가 준 것과 같은 것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애굽과 바벨론과 앗수르와 피사와 로마와 헬라 사람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임시적으로 거짓말을 시켰다가 보다 육신적으로는 종살이를 하지만 메시야가 오시면 영원한 천국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잠정적인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우리들이 기다리던 메시야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넷째, 자유인은 죄를 끊어버리는 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요 8:34)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죄’는 우리의 개별적인 죄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역사적으로 남의 종살이를 안했다고 치더라도 아담의 후예로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롬 6:17).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죄를 늘 멀리하고 경계하면서 죄와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해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마귀를 함부로 대하면 안됩니다. 간교한 마귀와 싸우려고 덤벼들다가는 백전백패하고 맙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려한다면 즐거워 하다가는 큰 일 납니다. 죄는 멀리하고 경계하고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면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죄는 눈을 흐리게 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각을 상실하게 하여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우물쭈물 하는 동안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맙니다.

2. 마귀의 자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하의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 본받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만 계승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요 8:37)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메시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었으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요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살인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요 8:38)

어두움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만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요 8:39)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혈통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풍이나 신앙과 같은 정신적인 유산을 얼마나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자들이 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혈통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허탄한 것을 믿고 따라잡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믿음에는 지식적인 믿음과 인격적인 관계에 기초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으나, 자기의 전부를 맡기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맡기는가가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입니다. 자기 제일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등 모든 일에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총현교회 예식지침

다음 예식지침은 우리 교회 당회가 성도들의 각종예식에 보다 잘 준행하기 위하여 가결한 내용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각종 예식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될 것이므로 성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거행하는 각종 예식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준수함으로써 예식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진행의 편리함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교회에서 거행하는 예식은 결혼예식과 장례예식으로 구분한다.

결혼예식

1. 약혼예배

약혼은 결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약혼식은 밀지않은 장래에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절차이다.

약혼을 원하는 당사자나 부모는 먼저 이 사실을 교역자에게 알린 후 일시와 장소를 정하도록 한다.

약혼식은 우리 교회를 3개월 이상 출석하여 당회장이 인정할 수 있는 교인이 약혼 주례 청원서를 2주일 전에 교회에 제출하여 우리 교회 목사의 주례로 거행한다.

약혼예배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약혼 주례청원서(소정양식), 교인증명서(타교회 교인은 소속 당회장 발급), 호적등본, 부모의 약혼승락서이다.

2. 결혼예배

결혼제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으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제도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통하여 성도들은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

결혼식에 있어서도 교역자와의 논의하여 하며 목사의 주례로 교회에서 거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례자는 우리 교회의 목사이어야 한다.

신랑, 신부는 우리 교회의 학습 교인이상이어야 하며, 양가 어느 한편이 우리 교회의 등록 가정이어야 한다.

결혼식의 일시는 주일 성수를 위하여 가능한 한 토요일로 정하는 것을 삼가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행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정한다(신혼여행은 주일을 피하여 가도록 한다.).

교회에서는 폐백을 하지 않는다. 그대신 손님을 위해 다과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능하며 케익을 자르면서 함께 모여 축하하는 것은 교회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도 권장한다.

부득이 하객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야 할 경우 교회 식당을 사용하되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야 한다(식당은 오후 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전석상 화려한 접대는 금한다.

예물 교환은 신,구약 성경 이외의 것은 하지 않는다. 단 찬송가가 합본된 신,구약 성경도 예물로 교환할 수 있다.

결혼 혼수는 기독교인의 모범적인 생활 양식을 좇아 검소하게 한다.

결혼예배 도중에는 소란스러운 축하절차를 하지 않는다.

화환은 일절 사절하며, 강단의 꽃꽂이는 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적어도 주례목사와 한 달 전에 의논해야 한다.

이혼자나 동거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회당에서 결혼할 수 없다.

결혼식을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 앞에 공식적인 광고를 하지 못한다.

결혼예배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결혼주례청원서, 교인증명서, 혼인서약서, 혼인 신고에 관한 서류, 부모의 결혼승락서이다(약혼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렸을 경우에는 교인증명서와 호적등본은 생략한다.).

장례예식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에 이르는 구원의 한 과정이라는 신앙에 기초하여, 부활의 소망 없는 불신자들과 같이 과도하게 애도해 하여서는 안된다.

장례는 고인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고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되새기는 예식이다.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례식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1. 임종예배

임종이 임박할 때에는 교회에 연락하여 교역자를 청해서 임종예배를 드릴 것이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조용히 임종을 맞는다.

임종이 가까운 분을 위해 성경(요11:17~27, 14:1~6, 딤후4:6~8 등)과 조용한 찬송(471장, 501장, 502장, 508장 등)을 들려 주고 기도를 하여 소망을 일깨워 준다.

임종이 가까운 분께 질문할 것이 있을 경우, 질문할 내용을 간추려서 쉽게 대답할 수 있게 한다. 대답하는 내용은 기록이나 녹음을 해 둔다.

2. 별세

운명 후에는 죽은 사람의 눈을 아래로 가볍게 쓰다듬어 주어 감게 한다. 즉시 탈지면으로 코와 귀를 막고 입을 다물게 한다. 턱을 받친 다음 배개를 약간 높이 하고 손과 발을 제 위치에 고정시킨다.

시신은 위생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혀 몸을 똑바로 잠자듯 해준다.

소속 구역 책임자나 교회에 즉시 연락함으로써 교역자가 즉시 상가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다.

장례 절차는 교역자와 교회 경조부의 지도 하에 이 지침의 규정에따라행한다.

교회 담당자가 도착하기 전에 당황하여 성급하게 장의사에 연락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한다.

시신의 손거동이 끝나면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맨발이나 머리 푸는 일이나 곡을 하는 것을 삼가한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들에게 알리고 허식을 삼가한다.

입관 전에는 교회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분향을 하거나 촛불을 켜두지 않는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조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교회 동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역자의 안내를 받아 교회 사무국에 하루전까지 연락을 하여야 한다.

3. 입관예배

임종 후 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수의와 관이 준비되면 형편에 따라 시간을 알려 입관하고 입관예배를 드린다.

이때에는 온 가족이 참석하도록 해야한다.

입관을 할 때에는 미신적인 행위는 일체 삼가하고 시신을 깨끗이 하여 수의를 입혀 집이나 방 구조에 따라 깨끗하고 적합한 곳에 안치한다.

수의를 고인에게 입힐 때에는 목사나 경조부의 지도 아래 고인의 자손들이나 유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임하도록 한다.

입관이 끝나면 입관예배를 드린 후에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을 입고 상장을 부착한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거나 굴건 제복을 하지 않는다. 상복이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가슴에 상장을 달아 상 중임을 표시한다.

4. 발인예배

발인식은 가급적이면 사망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하는 것이 좋으며, 미신적으로 장례일을 택해서는 아니된다(교역자와 의논하여 장례 일시를 정한다.).

주일이 끼었을 때에는 주일을 전,후하여 장례를 치른다.

유해가 장지를 향해 떠나기 전 엄숙하고 정중하게 발인예배를 드린다.

유족들은 장지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발인예배가 끝나면 곧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인의 약사와 조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다.

발인예배가 끝난 후 유해가 영구차에 운구되기까지는 장례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장지에 못가는 분들과의 인사는 영구차에 운구가 된 후에 한다.

고인이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일 경우에는 교회에서 발인예배를 드릴 수 있다.

5. 하관예배

하관예배는 목사가 거행한다.

장지의 산역은 하관하기 전에 완전히 준비하여 장지에 유해가 도착하면 곧 하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해가 장지에 도착하면 곧 하관을 한다.

하관예배가 끝나면 집례 목사가 먼저 취토하고 유가족, 조문객, 성도의 순으로 회향에 따라 할 수 있다.

동산 사용은 우리 교회 교인에 한하며 동산 사용 규칙에 준한다.

교회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할 수 있다.

6. 장례 후 묘소에 찾아 가는 일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난 후 3일째 되는 날 묘소에 찾아 가는 일은 충분한 것과 묘역을 살펴 보기 위한 것이므로 어느날이든 온 가족이 모이기 좋은 날로 정하여 하여도 무방하다.

7. 추모예배

유족들이 세상을 떠난 고인을 기억하여 추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추모예배는 고인의 별세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모예배는 가급적 1주기까지만 목사를 모시고 드리며, 만1년이 지나면 가정적으로 드린다.

49제나 탈상 등의 의식은 일체금한다. 제사상은 차리지 아니한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은 괜찮다.



삶을 통한 코이노니아



손 동 운 장로

미국 사람들은 길을 지나다가 이웃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는것을 봅니다. 삶 속에서 기독교적인 배움을 풍기는 청교도 신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사경을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더구나 교회에서조차도 그 벽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곳에서 강조합니다. 동질성을 회복하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손이고 이방인의 상태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잠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을 가눌 길이 없을 것이며 이웃에게 말해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을 입 속으로만 하실 작정이십니까. 성숙한 신자는 이웃과의 사귀이 정상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잘 살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만 사귀는 가지려는 것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자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교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 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서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깊은 사귀를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발돋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 된다고 봅니다.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사귀의 빈약이라고 자탄하지만 말고 오늘부터 우리모두가 이 작은 일 하나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고 그를 위해 나의 작은 봉사를 실천으로 옮겨 보십시오. 오늘은 살림하십시오 하십시오.

이 일은 몇 사람부터 실천해 옮기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들이 먼저 눈에 띄일 정도로 앞장서야 하겠고 집사, 권사가 같이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불소식의 꽃내음과 함께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비로소 섬기는 교회로 변모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호 세기들은 이영세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간증

능치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

정영희 집사

어린 시절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저는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충현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어쩌다 듣는 목사님의 설교가 좀처럼 마음에 와 닿지 않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맛볼 수 있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들 것이라고 하여 충현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믿음도 적었고 말씀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지만 정말 목사님의 말씀의 권위와 위엄에 이끌려 주일을 기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렵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증금 7만원에 매달 7천원을 주기로 하고 얻은 사글세방에서 시누이, 시동생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여섯 남매 중 첫째인 남편에게는 동생들의 일이나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담이 지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부는 열심히 노력하여 그런 부분들을 메꾸어 나갔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힘입어 더 잘 감당해 나가리라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제가 인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오랜 유교적 관습에 젖어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매를 들고 반대하시던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이 교회에 나가도록 허락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독교식으로 추도예배를 드리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안의 많은 형제들을 돌아보는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의 학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렸고 시누이의 결혼 비용, 시동생의 수술 비용, 농자금 등을 마련하다 보니 불어난 빚이 엄청났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조차 잘 되지 않았고 집 문제로 생긴 손해로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리려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저는 믿음이 적었지만 입으로는 늘 찬송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충현교회 교인인 것을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남에게 손해를 끼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하는 수 없다. 그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 매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충현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짐을 감당하려고 그 많은 어려움도 불평치 않고 살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겸소하게 살며 남의 일이나 선한 일에는 아끼지 말라 하셨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그런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였지만 미련하고 부족한 저는 지혜가 모자라 이렇게 어려운 지경

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저를 도와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고 건축 헌금도 하겠으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울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어 달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남편의 신앙의 그늘에서 교회를 다녔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영을 보내시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고 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를 만나리라고 하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83년 2월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였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었으므로 모든 일이 행통하였고 마음을 짓누르던 심장의 증세도 사라져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구역 권찰로 구역을 심방하며 약속한 십일조와 건축 헌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빛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여유가 닿는대로 건축 헌금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한 해 한 해를 넘길 때마다 걱정은 되었지만 앞 일을 걱정하고 저축을 하기보다는 물질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고 하신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이었습니다.

88년에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성전 헌당의 기쁨을 맛보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작전 중에 저희 가정에 좋은 장막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서는 이미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저의 믿음을 재어보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복이 육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뜻이 계시길 것으로 믿습니다.

88년에는 부족한 저에게 여전도회의 귀한 일을 맡기셔서 시간을 드려 기쁘게 봉사하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교회와 가정과 사업을 돌아보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 오직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일외에는 본을 보인 것이 없는데 세 남매 모두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는 큰 딸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동안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오직 하늘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 받지 않을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헌 수를 합시다

봄철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헌수하는 나무들로 교회당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기 간: 4월 30일까지

●참여방법: 헌금 또는 교회가 지정하는 나무(주목, 눈주목, 오엽송, 단풍나무, 느티나무, 조형소나무, 목련, 라일락, 장미, 함박꽃, 금잔화)

●접수처: 교회 사무국
(소석관 102호)

헌다락방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5 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죽음

성경: 고후 5:8; 계 14:13

요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후 5:8)

찬송: 138, 147

제 37 문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눅 23:43; 요 5:28, 29; 고후 5:1, 6, 8; 빌 1:23; 살전 4:14; 히 12:32).

설 명

죽음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다. 성도의 영혼은 죽음 직후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광중에 거하게 된다. 반면에 육체는 부활할 때

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사망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3:19)고 명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그 육체는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 마침내 부패하고 만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죄책에서 벗어났거늘 어찌하여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성도는 이미 정죄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형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성도의 경우에 있어서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기록하심에 참여케 하시려는 징계의 수단이요 훈련의 방편이다(히 12:10).

질 문

1. 성도의 육체는 죽음 이후에 어떤 상태로 됩니까(사 57:1, 2)?
2. 신자의 육체는 언제까지 그의 무덤에서 쉬게 됩니까(요 5:28, 29)?
3.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히 9:27; 뱀전 4:19)?
4. 성도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충현다락방 제31문에서 36문까지는 제14과와 내용이 중복되었으므로 제37문부터 게재합니다.